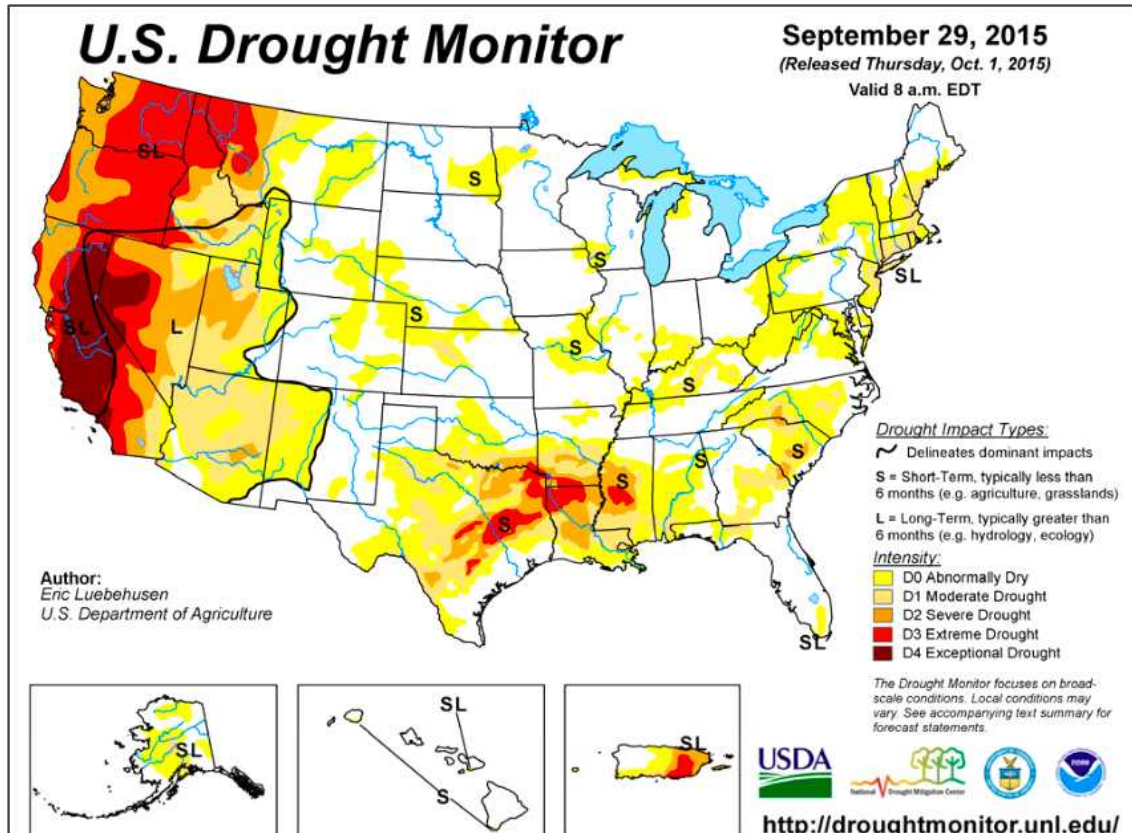


10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0)

□ 미국 기후 현황(9/27~10/3)



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Joaquin이 소멸하면서 남은 비구름이 해안 일부 지역에 비를 뿌렸다. 중부 일부 지역과 캐롤라이나 남부 해안 일대에서는 지난10월 1일부터 4일까지 최고 2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Black, Edisto, Waccamaw 강 일대가 범람했으며, 캐롤라이나 남동부와 북부 일대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다. 캐롤라이나 일대에 내린 비는 지난 한주간 건조한 날씨로 가뭄을 경험했던 농작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었다. 뉴 잉글랜드와 애틀랜타 중부 지역에서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걸프 연안 일대와 알라바마 남부, 플로리다 서부에도 주 초반 비가 내렸고, 오하이오 협곡 일대에도 비가 내렸다. 텍사스 동부와 중부, 미시시피 델타 등 보다 남쪽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미 서부 일대 전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북부 내륙 산간지역 일대는 주간 강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대평원 일대에서도 비가 내려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9/28~10/4)

동부일대에는 지난 한주간 평균 강우량을 웃도는 비가 내렸는데, 캐롤라이나 북부와 남부, 버지니아 일대에서는 평균보다 8배 이상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남동주 지역의 비는 수확을 앞둔 농지의 수확작업을 지연시켰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시시피 강 서부 전역에는 2 인치 이하의 비가 내렸다. 로키산맥 일대에는 평년보다 6°F 이상 높은 기온이 이어졌지만, 그밖의 미국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2~4°F 정도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10월 3일 기준으로 전국 옥수수 재배지의 86%에 이르는 지역에서 옥수수가 충분히 여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11%p 앞선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3%p 앞선 상황이다. 옥수수 지대 일대에서는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주리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률이 21%p 증가했고, 캔사스와 일리노이에서도 각각 20%p 수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는 10월 4일 기준 27%의 수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는 11%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5%p 뒤쳐진 수준이다. 아이오와에서는 현재 수확률이 직전 5년 평균 수확률에 비해 11%p 낮은 상황이고, 미네소타와 사우스 다코타에서도 각각 10%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10월 4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파종률은 49%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뒤쳐진 상황이다. 콜로라도와 아이다호, 캔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지난 한주간 파종률이 20%p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말 기준 겨울밀의 발아율은 20%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낮은 상황이다. 지난 한주간 아이다호, 몬태나, 네브라스카에서는 발아율이 2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면화

10월 4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열린 비율은 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p 앞선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준 면화의 수확률은 16%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앞서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2%p 뒤쳐진 수준이다. 15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수확작업이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앞선 수준이다.

■ 쌀

10월 4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7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7%p 앞선 수준이다. 알칸사스와 미시시피, 미주리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 세계 기후 현황(9/27~10/3)

■ 유럽: 맑지만 건조한 날씨가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에 이어졌고, 남부 일대의 주요 곡창지대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대서양 연안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영국과 폴란드, 프랑스 북부, 러시아 서부 등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기온은 평년보다 1~3°C 정도 낮았고, 여름 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 작물의 파종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중해 연안 일대와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적게는 10mm,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려 수확을 앞둔 여름 작물의 재배지역에서는 비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많은 지역에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 작물의 초기성장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우크라이나 중부 일대와 러시아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도 지난 7월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7°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어 겨울밀 생산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남부 일대에서는 5~3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이 지역 일대에도 28~32°C 정도의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어 겨울밀의 초기 정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Moldova 북부와 Belarus, 러시아 북서부 일대에서는 2~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태풍 Dujan의 영향으로 중국 남동부 일대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Dujan은 중국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중심부 최고 풍속이 90노트를 유지할 정도로 매우 세력이 강한 태풍이었으며, 지난 한주간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북부 고원 지역과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온도 평년보다 1~2°C 정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북부지역 일대에는 5~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려 수확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특히 Jilin과 Liaoning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북한에서는 북동부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남서부 주요 곡창지대에도 25~7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내외의 소나기가 내렸고, 일본에서도 벼 재배지 일대에 비가 내렸다.

■ 호주: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3주 연속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서호주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 수분의 손실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도 평년보다 3~5°C 정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밀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남동부 일대에서도 밀 생육 상황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 지역에도 비가 내릴 필요가 있을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이 지역 역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름 작물 재배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다. La Pampa, Cordoba 등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Parana 남부의 Buenos Aires, Entre Rios, Santa Fe, Cordoba 등에서는 25~75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La Pampa와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다 북부지역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북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북부 지역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22%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며, 북부지역일대에서는 파종작업이 종료되었다.

■ 브라질: 남부 일대에는 50~100mm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Parana,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일대에 집중되었다. 브라질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Parana 지역의 밀 수확률은 9월 28일 기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io Grande do Sul의 경우 10월 1일 기준 밀 수확률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as Gerais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10mm내외의 비가 내렸고, 지난 한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4°C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서부 일대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 비는 Tocantins 남부까지 이어졌다. 지난한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40°C까지 올랐다.